

이름	교과세특	바이트
	<p>강당에서 진행된 입학식(2018.03.02.)에 단정하게 교복을 착용하고 교사의 지도에 성실히 따름. 통합학급 또래도우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또래도우미를 자원하여 같은 반 특수학생을 입학식동안 대리고 다니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였음. 또한 학급회의 시간에 1년동안 지켜야 할 학급 규칙으로 지각시 청소구역 일정부분을 맡아 청소하기의 의견을 제시함. 지각했을시 맡아야 하는 청소구역을 정할 때 학급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정하기가 힘들었었음.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규칙인만큼 책임감을 지니고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후 각 장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학우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정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함. 이를 통해 위기관리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음.</p> <p>평소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아 관련뉴스를 보고 해당 내용을 학급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특히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정리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였음. 자율활동시간에 실시된 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남·북 문제의 배경과 의미, 역사적 사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습하였음.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왜 국제적으로 관심 받고 기사화되었는지에 대해 흥미가 생겨 관련기사를 찾아 읽고 스크랩하였음. 2018 남·북 정상회담이 각 나라에 미칠 영향들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음. 특히 2018 남·북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들을 과거의 남·북 공동선언과 비교하며 주장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였으며 논리정연한 주장으로 확실한 의견전달을 수행하였음.</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 주장으로 참가를 함. 대부분의 학급 친구들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연습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고 의견조율이 힘들거라고 예상되었던 종목이였지만 자발적으로 주장을 지원함. 쉬는시간을 이용해 학급 친구들과 함께 발판순서 및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철저한 연습계획 설정 및 의견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주장의 역할을 실시함. 또한 놋다리밟기 종목 이외에 학급 친구들이 참가한 다른 종목에서는 반가를 만들어 응원하며 학급 친구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함.</p>	
	<p>2학기 학급의 반장(2018.08.17.-2019.02.28.)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지각하지 않기, 이동수업시간 늦지 않게 이동하기 등의 학급 규칙을 제정하였음. 학급 친구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규칙을 지키는 솔선수범한 모습에서 리더십이 엿보임. 또한 매 청소시간마다 한 영역의 청소에 국한되지 않고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도와 청소하는 모습에서 선한 인성이 보임.</p> <p>진로개척기행(2018.05.21.)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조상의 지혜가 담긴 한옥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익스트림 롱샷 등 촬영기법을 찾아내어 촬영과 건축 간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되었음. 역사와 한옥과 같은 옛 문화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며 이에 맞는 촬영기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음. 또한 영상의 시각은 감독에 의해 정해진 프레임, 그 안의 주인공의 시야라는 것이 촬영기법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배움으로써 이후 영상촬영 및 제작 활동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됨.</p> <p>학생회 학예부 소속으로 제 1회 콜로세움 테마 콘서트(2018.10.31.)를 '너의 꿈과 끼를 보여줘'라는 테마로 기획하였음. 장르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리허설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음. 사전 홍보를 위해 쉬는시간마다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직접 홍보하였으며 참가자들의 MR을 미리 받아 편집하여 차질없는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의 입·퇴장 및 청중들의 입·퇴장 지도를 통해 안전에 기여하는 등 질서유지에도 노력하여 성공적인 콘서트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축제 준비 위원으로 자원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안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놀이 마당, 문화 마당, 공연 마당으로 다양화하자는 의견 및 계획을 제시하였음. 월광예술제의 테마와 주제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바뀌는 한자 '광'의 뜻을 찾아보고 현수막 문구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여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1팀당 6-9분 정도의 무대 사용 의견을 제시하는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반별 댄스 종목의 주장으로 참가를 함. 학급 댄스의 곡과 분위기를 선정하는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학급원 모두가 동의하는 곡을 선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 춤 영상을 미리 보고 안무를 숙지한 다음 쉬는시간을 통해 곡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천천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급이 단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p> <p>합창제(2018.07.19.)에서 주장으로 참가를 함. 합창제 총괄의 역할을 도맡아 합창제에 참가할 곡과 안무를 선정하는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사전회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합창제에 참가할 곡의 가사를 학급의 분위기에 맞춰 개사를 하였으며, 곡의 파트를 분배하는 일에도 참여하였음. 또한 곡의 분위기에 맞는 안무를 직접 구성해와서 쉬는시간마다 안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동작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과정을 통해 학급원 전체가 합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함. 합창제에서 학급의 입·퇴장 및 대형을 직접 구성하고 동선을 계획하여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수없는 합창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예비 공연기획자로서 필요한 경험을 쌓음.</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 학급 레크레이션에 자원하여 참여하여 학급을 대표함. 레크레이션 주장으로 공연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함.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함께 참가하는 친구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곡과 안무를 선정하였으며 관객들의 반응을 예상하여 안무를 직접 구상해오는 노력을 보임. 쉬는 시간 및 수업시간 이외에도 연습을 하였으며 힘든 과정에서도 친구들의 사기를 북돋는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모습이 보임.</p> <p>학급회의에서 학급개시판 꾸미기 담당자로 자원함. 어떻게 하면 학급을 특색있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뒤 학급 친구들을 관찰하여 각각의 특징을 추출해서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였음. 이후 학급 문에 게시함으로써 학급의 특징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함.</p>	
	<p>학교폭력예방교육(2018.3.16., 2018.8.24.)에 적극 참여하여 학급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소외와 따돌림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소통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앞장섬.</p> <p>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2018.04.13.)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상황에 따라 올바른 약물복용방법을 학습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 줄다리기, 전략줄다리기 종목에 참여를 하여 학급이 단합하는데 기여를 함. 또한 쉬는시간마다 연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음. 연습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정하기가 힘들 때마다 의견조율에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연습시간을 통해 협업의 의미를 깨닫게 됨.</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족한 노래와 안무를 보충하기 위해 쉬는시간마다 합창제 주장에게 적극적으로 배워 학급이 단합하는데 기여를 함. 평소 노래에 자신이 없었지만 단합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통해 맡은 바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보임.</p>	
	<p>학교폭력예방교육(2018.03.16., 2018.08.2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두가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앞장섬.</p> <p>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2018.04.13.)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아 및 어린이 시절부터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음.</p> <p>장애인식개선교육(2018.04.27., 2018.08.24.) 영상 시청을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의 차이일 뿐이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음.</p> <p>월광예술제(2018.12.27.) 학급부스인 펄러비즈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모임에 참여하였음. 선정된 펄러비즈 모델들의 도안을 만드는 역할에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특히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안을 만드는 것에 착안하여 다양한 의견을 냈. 또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진로희망과 연관지어 생각하다가 '유치원에서의 펄러비즈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표함. 아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모델을 선정한다면 동기유발을 증진시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체험시 아이들의 상상력 및 집중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있을거란 내용으로 학급 아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의 사진 촬영을 바탕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선물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학급앨범을 제작하게 됨. 학급앨범 제작 사전회의 참여하여 레이아웃 구성부터 역할 분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였음. 사진을 배치하고 난 뒤 남은 허전한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평소 자신있어하던 그림그리기를 이용하여 채워넣음으로써 특색있는 학급앨범을 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또한 여려명의 친구들이 함께 고생하여 학급앨범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진로희망과 연관지어 아이들의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해당 활동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나아가 아이들의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리스트를 제작하여 스크랩하였음.</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과 건전한 이성교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술과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학습함.</p> <p>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2018.4.27., 2018.8.24.) 시 영상물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로잡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음.</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5.14.-2018.5.15.)에서 학급 댄스종목에 자원하여 학급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음. 평소 춤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학급이 단체로 출전하는 종목인 만큼 어려운 동작을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완벽히 숙지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며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됨. 또한 기마전 종목에 참여해 상대방의 모자를 벗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쉬는 시간을 통해 같이 출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임. 이외에도 학급의 친구들이 참가한 종목을 찾아가 응원가를 만들어 응원하는 모습으로 학급이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함.</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 렉크레이션 종목에 자원하여 학급의 대표로 참가하였음.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안무를 숙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합창제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는 종목에서의 의견 조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p>	
	<p>평소 광고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친구들과 자신이 매력있게 본 광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월광제(2018.12.27.) 학급부스인 펠러비즈 운영을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해 역할분배에서부터 세부일정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주도함. 평소 관심 있어하는 광고와 관련해 펠러비즈 홍보 포스터 제작에 자원함. 펠러비즈의 소비자가 학생임을 파악하고 소비자 특성에 적합한 포스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학우들에게 기억나는 광고를 물어보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조사를 실시하였음. 아파트에 불어있는 부착형태의 광고전단지를 보며 학생들이 이러한 형태의 전단지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착안하여 학생들이 때어서 가져갈 수 있는 부착형태의 포스터를 제작함. 이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작용하여 성공적인 학급부스 운영에 큰 기여를 함. 광고 제작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매료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p> <p>평소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력이 매우 뛰어남. 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함께 앨범을 만들 급우들을 구성하고 앨범을 제작함. 레이아웃 구성과 사진 선택 및 배열을 결정하는 디자인 총괄을 맡으면서 앨범 제작의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함. 앨범에서 학급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급 아이들의 개성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이를 스티커로 제작해 꾸며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자신이 맡은 역할 이외에 다른 학급 친구들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의견들도 조율을 통해 갈등 없이 작업을 진행해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음.</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에서 데이터 폭력을 다른 영상을 보고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알게됨. 교육 이후 그것은 썸도 데이터도 섹스도 아니다라는 미국 대학가에서 발생한 데이터 폭력을 분석한 책을 읽으며 아직 여성인권에 대해 무지함을 깨닫고, 나쁜 페미니스트,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를 읽고 여성인권에 대한 지식을 쌓음.</p> <p>디베이트 캠프(2018.10.29.-2018.10.30.)에 자원함.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자'는 논제에 대해 찬성측 입장에서 대변함. 특히 반대측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대다수'라는 주장에 '정치적 권한 없음이 낳은 무관심을 권리로 부정하는 전제로 삼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며 3·1운동부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까지 청소년들이 정치적 변화의 주역으로 참여한 역사적인 전거를 제시하며 반박함.</p>	
	<p>1학기 학급의 부반장(2018.03.02.-2018.08.16.)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전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급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함. 특히 학급 규칙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학급 친구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규칙이 완전히 제정된 이후에 앞장서서 규칙을 지키는 솔선수범한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됨.</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축제준비 위원으로 자원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관련 역할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였음. 또한 사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로 참여하여 모든 학생들이 해당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이를 통해 행사 당일 원활한 참가가 이루어졌으며 맡은 바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전략줄다리기에 자원해 참가했음. 매 쉬는시간을 통해 연습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개인이 아닌 단체 종목인만큼 단기간에 좋은 호흡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연습을 이끄는 것을 통해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됨.</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2학기 학급의 부반장(2018.08.17.-2019.02.28.)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전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급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함. 특히 학급 규칙을 제정하는 회의에서 학급 친구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급우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규칙이 완전히 제정된 이후에 앞장서서 규칙을 지키는 솔선수범한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모든 종목을 총괄하는 반장을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체육제에서 약 10여개의 다양한 종목에 모든 학급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후 학급 친구들과의 개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특성을 파악한 후 어울리는 종목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했으며 이에 모든 학급 친구들이 원하는 종목에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학급을 이끄는 모습에서 강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음. 또한 놓다리 밟기, 죽구, 피구 등 대부분의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참가한 종목에서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든 책임감을 다하고 수행하였음. 이후 다른 종목에 참가한 학급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가를 만들어 응원을 주도하는 등 학급이 단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p> <p>월광예술제(2018.12.27.) 학급부스인 펄러비즈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급부스 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사전회의를 통해 선정된 펄러비즈 캐릭터의 도안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학급부스가 원활히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p>	
	<p>월광 예술제(2018.12.27.)에서 오전에 열린 다양한 교내 행사 및 학급 부스에 참여하여 건전한 학생자치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오후 공연에서 질서 있게 참여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임.</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학급 단체종목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p> <p>힐링 톡 콘서트(2018.11.23.)를 보면서 강사가 들려주는 가난과 역경을 거쳐냈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함</p>	
	<p>1학기 학급의 반장(2018.03.02.-2018.08.16.)으로 선출되어 책임감을 지니고 학급이 단합될 수 있도록 노력함. 학기 초 학급회의에서 학급 친구들 스스로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회의를 이끌었음. 이후 직접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학급 친구들을 독려하는 모습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보임. 또한 '리더로서의 조건' 독서를 통해 리더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급의 크고 작은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겨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설을 읽고 학급 친구들과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였음. 세계화 시대에서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악소국 입장에서 비핵화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의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자국의 방어가 아닌 권력을 위한 방어수단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규제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움.</p>	
	<p>체계적으로 정리된 근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논리정연하게 의사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음.</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장소들 중 4·3 평화공원을 소개하기 위한 사전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하였음. 제주 4·3 평화공원기사를 스크랩하였으며 시대적 상황, 사건의 현실에 대해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함. 정치적 희생양이 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죄송함을 느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눔. 특히 제주 4·3 사건을 해외기사를 통해 접근하며 외국의 시각을 알아보고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독서를 통해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국내 및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계기가 생김.</p> <p>'당신들의 천국(이정준)'을 읽고 '소록도에 살고 있는 원생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 토론함. 모두가 차별이나 선입견 없이 공존하는 사회, 권력자와 하수인의 관계라는 개념을 제거한 사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유토피아가 아닌 자신들의 유토피아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주장을 펼침. 이를 위해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과 개선, 협력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토론 내용이 인상적임.</p>	

	<p>학급 회계를 담당하여 공동 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학급 행사 진행에 일조함. 월광한마음체육예술제에 사용하기 위한 학급 단체 티, 수능응원 등 교내 행사에서 학급이 단체로 돈을 걷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명령표를 작성하여 일일이 확인하며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p> <p>학교폭력예방교육(2018.03.16., 2018.08.2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두가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앞장섬.</p> <p>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2018.04.13.)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아 및 어린이 시절부터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음.</p> <p>환창제(2018.07.19.)에 참가하기 위해 학급을 대표하는 곡과 안무를 선정하는 회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월광한마음체육제에서의 아쉬움을 달랠자는 확실한 동기로 쉬는시간 및 수업시간 이외에도 이루어졌던 연습에 모두 참여하는 등 성실한 면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학급이 단합하는데 큰 기여를 함. 함께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완성된 곡을 실제 경연에서 이루어 낸 것을 보고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평소 국제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스크랩하고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음. 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에서 남·북 문제의 배경과 의미, 시사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학습하였음. 이후 남·북 문제에 관심이 생겨 분단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하였고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였음. 토론과정에서 통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3가지 관점인 경제적, 자리적, 국제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사전에 스크랩해놓았던 신문기사들을 정리 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위해 노력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또한 자신과 반대되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질 때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하게 정리해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임.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모습이 능숙했으며 이를 통해 학급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p>디베이트 캠프(2018.10.29.-2018.10.30.)에 자원하였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해 청소년도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연령 한 가지 요소로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측 입장을 대변 함. 캠프 실시 전 사전 조사를 통해 반대측에서 내세울만한 의견을 미리 선정하여 그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토론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자세히 알지 못했던 토론 방법과 토론 규칙에 대해 상세히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학급 토론에서 배웠던 규칙과 방법을 적용하여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학급부스인 펄러비즈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스운영을 위한 자리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며 공통된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또한 만들어진 도안을 따라 펄러비즈를 조립하는 과정을 미리 학습한 후에 학급 친구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모범을 보이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였음.</p>	
	<p>월광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축구 종목에 반 대표로 참가하였음. 선배들과의 연합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종목으로 긴장을 많이 한 뒷에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학급 친구들의 응원을 보고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경기에 임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종목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단합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됨. 또한 출전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학급 친구들이 출전했다면 찾아가 응원가를 만들어 부르며 참가한 친구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월광한마음체육제에서 학급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함.</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 레크레이션에 지원하여 반 대표로 참가하였음. 쉬는시간을 통해 노래와 안무를 숙지하였으며 어려운 안무가 있으면 능숙한 친구에게 찾아가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또한 안무시 가장 효과적인 배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함.</p> <p>가정폭력 교육(2018.11.09.)을 듣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됨. 가정에서 시작된 폭력이 학교폭력, 다음 세대의 가정폭력 등 나비효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과 건전한 이성교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술과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성희롱,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학습함.</p> <p>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2018.04.13.)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상황에 따라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을 학습함.</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 학급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급 앨범을 자원하여 제작하였음. 앨범의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고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앨범의 한정된 크기로 인해 모든 사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함께 만드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협명한 결과를 이끌어냄.</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학급부스인 펄러비즈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펄러비즈 모델을 선정하고 도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즈들의 수량을 일일이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주도하여 원활한 부스가 진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또한 가장 인기있는 펄러비즈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준비하였던 친구들과의 토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며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됨.</p> <p>월광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전략줄다리기, 피구, 탁구 등 다양한 단체 종목에 참가하였음. 쉬는시간을 통해 연습하였으며 어려움이 닉칠 때마다 능숙한 친구에게 찾아가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선한 인성이 보임.</p> <p>신페소생술 교육(2018.06.08.)에서 위급한 상황시에 대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였음. 또한 인형에 직접 흉부암박을 실시해보았으며 실제 길거리에서 위급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짐.</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평소 희망하던 진로인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 해부학 과정이 존재함을 알고 체험해보고 싶었으나 기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인근 대학의 전공체험(2018.10.26.)에 쥐해부 실습이 있어 자원하여 참여하였음. 동기가 확실하여 열정적으로 임하였고 실습 전 강의에서 동물도 인간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동물복지와 동물 실험의 원칙 3가지를 학습하였음. 이외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락사 방법 및 금지된 안락사 방법, 실험동물로써 쥐를 선택한 이유, 쥐의 해부학 특징에 대해 학습하였음. 평소 살아있는 동물을 대한 실험을 부정적으로만 여겼지만 강의 이후 동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예비 간호사로서 안락사를 하는 과정에서 끈질기게 살아남고, 해부 도중에도 뛰고 있는 심장을 보며 생명의 끈질감을 느낌과 동시에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간호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함.</p> <p>간호사로서의 진로를 꿈꾸고 있으나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직업을 다양하게 조사하던 중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알게되었고 흥미가 생김. 이에 일일 치과위생사 체험(2018.09.28., 2018.10.05.)에 자원하여 구취와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학습함.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치아우식증의 원인과 예방 방법, 치아우식증의 정도에 따른 치료 방법, 치주질환과 스케일링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이후 자신의 치태를 먹는 염색약으로 염색하여 확인하고 구취를 직접 측정해보는 실습을 통해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하루에 3-4번씩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됨. 이를 정리하여 2-3년 전 걸린 충치의 심각성과 사소해 보이지만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음. 특히 양치질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는 모습에 학급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을 통해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에 대해서 학습하였음. 기존 성교육을 통해 성관계는 부정적인 행위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영상시청 및 실습을 통해 성관계는 생명을 만드는 뜻깊은 행위다라는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에 자원하여 쉬는시간마다 출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냄. 연습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지만 모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며 조율하였음.</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학교폭력예방교육(2018.03.16., 2018.08.24.)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와 따돌림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소통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앞장섬.</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놋다리밟기와 줄다리기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가정폭력 교육(2018.11.09.)을 듣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됨. 가정에서 시작된 폭력이 학교폭력, 다음 세대의 가정폭력 등 나비효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학교폭력예방교육(2018.03.16., 2018.08.24.)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와 따돌림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소통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앞장섬.</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음.</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가정폭력 교육(2018.11.09.)을 듣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됨. 가정에서 시작된 폭력이 학교폭력, 다음 세대의 가정폭력 등 나비효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놋다리밟기와 전략줄다리기 및 팔씨름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학급 환경 꾸미기에서 학급 게시판 담당을 자원하였음. 게시판을 학급 친구들의 특징이 드러나면서 특색있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급 아이들의 유년기 시절 사진을 이용한 게시판 꾸미기를 아이디어로 제시하였음. 학급 친구들의 현재는 알지 못했던 시절을 이용한 아이디어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학급 친구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 또한 작은 테마로 유년기 시절 사진만 배열한 채 사진만 보고 이름 맞추기를 진행하여 학급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피구, 놋다리밟기, 가마싸움 종목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 특히 피구 종목에서는 학급 아이들의 특징을 구분하여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 학급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쉬는 시간을 통해 학급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선한 인성이 느껴짐.</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학급 친구가 출전한 종목에 대한 응원가를 만들어 학급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음. 학급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함께 출전하는 종목에서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음.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모습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임. 쉬는시간에 곡의 가사를 숙지하였으며, 춤을 많이 춰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안무를 가르칠 정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임.</p> <p>심폐소생술 교육(2018.06.08.)에서 위급한 상황시에 대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였음. 교육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질문이 있을시에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어린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실제 사례를 듣고 위급한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실습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였음.</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운영할 학급부스를 선정하는 사전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모두가 만족할만한 펠러비즈 부스를 선정하는데 기여하였음. 펠러비즈부스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의 임무를 맡고나서 펠러비즈의 특성인 쉬운 접근성을 추출하여 포스터에 나타냄. 깔끔한 포스터를 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였으며 펠러비즈의 장점이 잘 드러난 포스터로 인해 학급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p> <p>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의 사진 촬영을 바탕으로 학급 친구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선물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학급앨범을 제작하게 됨. 학급앨범의 레이아웃 구성시 사진의 위치조정, 붙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진을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또한 맡은 역할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역할을 함께 도와 앨범을 완성했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이를 계기로 협력의 중요성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의사전달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음.</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쓰레기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도맡아 청결한 학급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맡은 바에 최선을 다 하는 책임감이 돌보임.</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과 건전한 이성교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솔과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학습함.</p> <p>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2018.4.27., 2018.8.24.)시 영상물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로잡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음.</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인근 대학에서 실시한 전공체험 취해부 실습(2018.10.26.)에 참가하여 취의 특징과 취해부 방법을 학습함.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안락사 후 각 신체의 표피와 근육을 재가하는 방법으로 실습을 진행하였음. 실습을 하며 동물의 각 장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물실험윤리에 대해 '동물실험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에 대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윤리 원칙3가지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하였음. 또한 동물장기와 사람 장기의 각 구조를 비교해보는 활동으로 정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하였음.</p> <p>인근 대학의 전공체험(2018.07.11.)에서 간호학과에 방문하여 보건계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보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스크립트하였음. 또한 물리치료학과에 방문하여 물리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테이핑을 실시하였으며 헬액형에 맞는 DNA순서 배열을 이용한 팔찌 만들기를 체험하며 평소 관심있던 분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p> <p>기생충 박사의 강의(2018.05.28.)를 통해 기생충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됨.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게되었고 기생충의 장점을 학습하며 평소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었던 기생충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로 작용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와 축구, 피구 등 다양한 종목에 반 대표로 자원하여 참가하였음. 학급 친구들과 함께 반 티를 선정하고 출전선수를 정하는 사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또한 함께하는 종목인만큼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매 쉬는 시간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능숙한 친구에게 찾아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동작을 수정하여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함.</p> <p>합창제(2018.07.19.)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연습시에 박자가 맞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MR에 박수소리를 넣어 박자를 맞추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원활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여 학급 친구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음. 쉬는 시간마다 연습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실제 합창제에서 학급 친구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협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됨.</p>	
	<p>월광예술제(2018.12.27.)에서 학급부스인 필러비즈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평소 진로희망분야에서도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자원하였으며 필러비즈 도안을 고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학급 친구들에게 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인기있는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정된 모델을 입체화 시킴으로써 참여하는 학생들이 필러비즈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에서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고 관련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단순히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통일이 된다면 이후에 대처방안 및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함을 깨닫게 됨.</p> <p>월광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 종목에 자원하여 참가하였음. 개인이 아닌 단체 종목인 만큼 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 어려웠지만 매 쉬는 시간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협력의 의미를 깨닫게 됨. 또한 출전하지 않은 종목에서도 학급 친구들이 참가하였다면 찾아가 응원가를 같이 부르며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학급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음.</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체육반장으로서 사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축구 및 축구 규칙을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었으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이해를 도움. 또한 각 종목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회의에서 모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공평하게 참가종목을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다양한 종목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	

	<p>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학급 환경 꾸미기에서 학급 게시판 담당을 자원하였음. 게시판을 학급 친구들의 특징이 드러나면서 특색있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급 아이들의 유년기 시절 사진을 이용한 게시판 꾸미기를 아이디어로 제시하였음. 응답하라2002를 테마로 선정하고 제목부터 사진 배열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임. 또한 유년기 시절 사진을 이용한 이를 맞추기를 진행하여 학급이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에서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음. 이후 단순한 남·북한의 현실에서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남·북한의 관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관련사설 및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였음.</p> <p>합창제(2018.07.19.)에 참가할 학급의 밝은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쉬는시간을 통해 노래와 안무를 숙지하기 위해 연습하였으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능숙한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함.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발전해가는 모습과 학급 전체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협동의 의미를 깨닫게 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에서 놋다리밟기, 탁구 종목에 자원하여 출전하였음. 놋다리밟기 종목을 위해 쉬는시간에 출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며 놋다리밟기의 원리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며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가 됨. 또한 연습에서 적용하였던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우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이후 학급 친구들이 참가한 다른 종목을 찾아가 응원을 하여 학급 분위기가 단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경기를 마치고 좋지 못한 결과 때문에 자책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괜찮다며 응원해주는 모습에서는 배려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음.</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배경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음.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전례에 비해 점점 능동적인 양측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북측의 태도 변화가 돋보인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다른 의미를 파악하였음. 남북간 과거의 교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변천사를 조사해보는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는 단순히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얹혀있는 전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였음. 추가적으로 교과시간에 배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당시의 시대와 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고 같은 민족끼리의 동족상잔 같은 역사는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와 그 이상의 발걸음을 통해 되풀이되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였음. 정확한 이해관계를 파악한 내용과 논리정연한 의사전달을 통해 학급 친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p> <p>합창제(2018.07.19.)에서 발표할 곡을 연습하기 위해 안무를 창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음. 동작이 너무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했던 학급 친구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자세 교정을 도와주며 협동을 직접 실천하였고 이를 통해 합창제에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여 참여할 수 있었음. 발표에 앞서 동작이 급하게 변경되어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학급 친구들에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심어주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탁월함을 볼 수 있었음.</p>	
	<p>성교육(2018.4.27., 2018.5.25., 2018.10.12., 2018.10.26.) 통하여 청소년의 성의식 개선과 건전한 이성교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술과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학습함.</p> <p>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2018.04.13.)에 적극 참여하여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상황에 따라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을 학습함.</p> <p>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2018.4.27., 2018.8.24.)시 영상물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로잡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음.</p> <p>월광 예술제(2018.12.27.)에서 오전에 열린 다양한 교내 행사 및 학급 부스에 참여하여 건전한 학생자치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오후 공연에서 질서 있게 참여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임.</p>	

	<p>인근 대학의 전공체험(2018.07.18.)에서 진로희망분야인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체험 부스를 찾아가 체험하였음. 간호학과부스에서는 해당학과 재학생 및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음. 이후 직접 손소독제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이를 정리하여 스크랩하였음. 물리치료학과에서는 근육이 무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포츠테이프 붙이는 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붙여보는 실습을 경험함. 재학중인 사람들과의 질의응답은 비록 희망분야와는 관련이 없지만 원하는 진로분야에 진학해서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바램을 하게 됨.</p> <p>교과시간에 배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관심이 생겼고, 진로개척기행(2018.09.18.-2018.09.21.)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였음. 모든 학살사건들의 원인이 하나의 오해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한민족인 군인들이 제주도민을 고문했다는 사실의 안타까움을 상세히 발표하여 학급 친구들의 좋은 반응을 얻음.</p> <p>또한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급 앨범을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매 쉬는 시간을 통해 앨범의 전체적인 틀에서부터 사진 선정까지의 과정을 논의하였으며 학급의 분위기를 앨범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에 참가하였음. 이후 완성된 앨범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학급이 단합하는데 큰 기여를 함.</p> <p>심폐소생술교육(2018.06.08.)에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수강함. 인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하여 몸에 익히는 과정을 거쳤고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 학습함. 이후 통일문제에 관심이 생겨 관련사설을 찾아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통일에 대해서 통일시 우리나라의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표면에 드러나는 이유로만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자원을 통한 이익창출효과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함을 깨닫게 됨.</p>
	<p>월광예술제(2018.12.27.) 학급부스인 펄러비즈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모임에 참여하였음. 펄러비즈의 모델을 정하고 도안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비즈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보고 숙지하는 등 원활한 학급부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함.</p> <p>월봉한마음체육제(2018.05.14.-2018.05.15.) 시에 능동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전략줄다리기에 학급 대표로 출전하여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우고 성실히 임하여 학급의 단결에 일조함.</p> <p>심폐소생술 교육(2018.06.08.)에서 위급한 상황시에 대처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였음. 또한 인형에 직접 흉부압박을 실시해보았으며 실제 길거리에서 위급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짐.</p> <p>학교폭력예방 교육(2018.03.16., 2018.08.24.)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두가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앞장섬.</p> <p>합창제(2018.07.19.)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로 협동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더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갈등관리와 협동심을 배움.</p> <p>통일안보교육(2018.03.09., 2018.06.01., 2018.08.17., 2018.12.21.)을 통해 남·북 관계의 배경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음.</p>